

처음 느낌 그대로 **자동차 광택과 코팅**

눈부시게 빛나는 새 차를 받았을 때의 설렘.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차체에 각종 오염물질이 달라붙고 차에 흠집이 생기거나 본래의 색, 광택까지 감소되는 현상을 목격하면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자동차 광택, 코팅 등을 생각하게 된다.

자동차 광택 혹은 코팅, 과연 하는 게 좋을까?



■ 자동차 '광택'과 효과

자동차 '광택' 작업은 도장 표면의 스크래치 골짜기 깎아내 표면을 고르게 하고, 반짝반짝 광을 내는 것을 의미한다. 손상 정도에 따라 작업 방법에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컴파운드'라는 모래 가루와 윤활유가 함유된 연마제를 표면에 도포하고 광택기(폴리셔)로 돌리며 작업하며, 흔히 '폴리싱(Polishing)' 이라고도 부른다.

광택 작업을 진행하면 자동차 도장에 붙은 오래된 먼지나 타르(주행 중 아스팔트 등으로 생기는 얼룩), 스크래치 및 스월 마크(소용돌이 모양 등 얇은 흠집) 등이 제거되어 마치 새 차 같은 반짝거림을 느낄 수 있다. 그렇다면 광택 작업을 하기에 적절한 시기는 언제일까?

일반적으로 자동차 광택의 정도를 측정할 때 '광택 측정기' 를 사용한다. 유리 거울의 광택을 100이라 했을 때 막 출고한 새 차의 광택도는 약 80, 출고 후 1년이 지나면 60 정도로 떨어지며, 3년이 되었을 때 평균 40~50 정도의 광택도가 측정된다. 평균 70 이상의 광택도가 유지되어야 자동차 외관상 보기 좋을 뿐만 아니라 페인트의 산화 현상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광택의 정도가 현저히 낮다고 판단될 때 광택 작업을 하는 것이 좋다.

■ 자동차 '코팅'과 효과

도장 표면을 벗겨내는 광택과는 다르게 자동차 '코팅' 은 도장 표면에 보호막을 입히는 작업이다. 코팅 작업을 진행하면 때가 덜 타고 흠집이 생기는 걸 방지해줄 뿐만 아니라, 세차가 쉬워지고 자동차 외장의

수명을 늘릴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자동차의 외장을 보호하기 위해 이제 막 출고된 차량에 코팅 작업을 하기도 하고, 어느 정도 연식이 된 자동차는 광택 작업 이후 도장 표면을 더 보호하기 위해 코팅 작업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코팅' 작업은 방식에 따라 크게 세 종류로 나뉜다.

● 왁스 코팅

가장 많이 사용하는 코팅 방법이다. 작업에 필요한 코팅제를 주변에서 쉽고 저렴하게 구할 수 있으며, 작업 방식이 비교적 간편하기 때문이다. 왁스의 성질에 따라 액체형과 고체형, 반고체형, 스프레이형 등 다양한 종류의 코팅제가 있다.

왁스 코팅은 간편하고 빠르게 광택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장점이지만 세차나 빗물, 외부 환경에 노출되면 지속 효과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 유리막 코팅

유리막 코팅은 액체 형태의 코팅제를 바르고 난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얇은 막을 형성해 각종 오염물질이 차량에 들러 붙는 것을 방지하고 발수 성능을 높여 유막이 생길 확률을 줄여주는 방법이다. 작업에 쓰이는 코팅제에 유리의 주성분인 '이산화규소(SiO2)' 가 포함되어 있어 '유리막 코팅' 이라고 부른다.

왁스 코팅에 비해 코팅막이 두껍고 코팅 지속 기간이 긴 편이기 때문에 작업 이후 전반적인 차량 관리가 수월하다. 어떻게 자동차를 관리하느냐에 따라 지속 기간은 달라지지만 평균적으로 1~2년, 길게는 그 이상 유지되어 높은 지속성을 보인다.

● 필름 코팅

필름 코팅은 차체 도장 위에 얇은 필름을 입히는 작업 방식으로 '랩핑(wrapping)' 이라 부른다. 투명한 필름과 색상이 들어간 필름이 있기 때문에 흰색 차량을 검정색으로 바꾸는 등의 작업도 가능한 코팅 방법이다. 신차 출고 이후 차량 보호를 위해 투명한 생활 보호 필름 작업을 주로 선택하고, 오래된 차

량 외관의 색상 변경 등을 위해서 도색 대신 필름 코팅을 선택하기도 한다.

도색을 하게 된 경우 이후에 또다른 색상으로 바꾸거나 본래 색상으로 돌아오기 어렵지만, 랩핑은 도장 표면 위에 덮어씌워 놓는 것이기 때문에 벗겨 내기만 하면 원래 차량 색상으로 되돌리기 편해서 최근엔 도색보다는 랩핑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 광택 & 코팅 작업 시 유의사항

자동차 광택 작업을 진행했다면, 코팅 작업까지 함께 하는 것이 좋다. 광택 작업은 도장을 깎아내고 보호막은 따로 씌우지 않기 때문에 흠집이 더 잘 생길 수 있고, 작업하면서 생긴 표면의 미세한 결 사이사이에 먼지나 산성비가 침투하면서 오히려 작업 전보다 더 큰 손상을 줄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코팅까지 함께 진행해 유지력을 높여주는 것이 좋다. 단 여러 번 광택 작업을 진행하면 도장이 완전히 깎여 나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광택 작업 시에는 유리나 와이퍼 등에 차량용 마스크 테이프를 잘 붙여줘야 한다. 연마제가 차량 곳곳에 묻어 지저분해질 뿐만 아니라, 와이퍼 작동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광택 작업 후에는 한동안 자동 세차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코팅 작업의 경우,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가 동반되어야 한다. 주기적인 세차 등 차량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크고 작은 오염물질이 코팅막을 덮어 반짝이는 효과가 감소한다.



■ 자동차 도장을 망치는 3가지 습관

- ① 자동차를 방치해 차량 표면에 오염물질이 쌓이게 하는 행위
- ② 세차 혹은 광택 작업 시 청결하지 않은 천 등을 사용해 오히려 차체 표면에 상처를 내는 행위
- ③ 차를 사자마자 광택 작업을 진행해 도장 표면이 자리 잡기 전에 훼손하는 행위



HARBOR
IMPLANT & COSMETIC
DENTISTRY

하버종합치과

임플란트 전문병원



Michael Han
DDS, FICOI

전 미8군 사령관 전담 주치의

- University of Colorado School of Dental Medicine
- International Congress of Oral Implantologists- Fellow
- The American Academy of Implant Dentistry
- The American Academy of Cosmetic Dentistry
- 워싱턴 대학교 외래교수
- 전 Columbia 치과 병원장
- Dental Director at Carius Dental Clinic, U.S. Army (전. 용산 주한 미8군 병원장)



- 최첨단 의료장비
- 최고의 시설
- 실력있는 의사

상담/예약 714.773.9999 플러튼 1호점 / 브레아 2호점 / 부에나팍 3호점